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7차 세션, 신약성서의 성전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신약 신학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세션 7, 신약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성막, 에덴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창세기와 구약에서의 연관성 때문에 이 주제를 모았습니다.

저는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성전에 대해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에 있어서 성전이나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이 중요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의 상징입니다. 성전과 성막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첫 번째 창조에서 그의 성소 거처를 회복하고 그의 백성과 함께 거주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된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창조 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심으로써 성전의 진정한 의도를 성취하기 시작하신 신약의 증거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 성전의 임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성전 이미지나 성막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이며 성전의 임재가 이제 그의 백성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약의 다른 여러 본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주제에서 일어나는 일과 매우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 그의 백성,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서도 성취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듯이,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하겠지만,

이러한 약속의 대부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취되거나 이러한 주제의 대부분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됩니다.

둘째, 확장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그에게 속하거나 그와 연합된 추종자들 속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전 주제에 대해서도 확실히 사실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1장과 2장과 같은 책에서 복음서와 예수의 주장을 벗어나 움직이는 첫 번째 장소는 다음 정지 장소이며, 그것은 사도행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안의 방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당신을 설득하든 그렇지 않든, 다른 모든 종류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소위 오순절, 혹은 어떤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교회의 생일에 대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과 오순절에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모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였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특히 요엘 2장의 성취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베드로는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자는 마치 불의 혀가 그들 위에 떠다니며 방언으로 말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지만, Greg Beal이 몇 편의 기사와 그의 더 큰 신약 신학 책에서 주장했듯이, Greg Beal은 사도행전 2장과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한 것은 실제로 성전 장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이미지를 주장합니다. 그는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와 다른 여러 주제와 용어를 추적하여 성전과 다시 연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 그의 성전을 채웁니다. 이는 우리가 에스겔 43장에서 성막을 짓는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성전을 채우는 것을 본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아마도 성전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전 주제가 확장되고 확장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하는 것을 이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실제로 두드러진 모티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약의 저자, 특히 바울은 성전 이미지나 성전 언어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장의 가능한 예를 넘어보고 싶습니다. Greg Beale의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를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이 성전 장면이라고 주장하는 성전에 대한 여러 섹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바울 문헌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또한 바울 문헌의 여러 본문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신이나 예수가 성령을 통해 신자들과 함께 있다는 일반적인 주제만으로도 성전 개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성전 언어는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사람들 속의 예수의 임재, 그리고 그의 백성 속의 성령의 임재는 모두 성전 언어나 성전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에서 발견되는 죄 사함을 위한 최후의 희생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심지어 바울이 예수를 죄 사함을 베푸는 자로 묘사한 것조차도 적어도 암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대체하거나 성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용서는 이제 더 이상 성전과 성전에서 희생을 드리는 것과 연관되지 않지만, 이제 죄에 대한 용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만 발견됩니다. 따라서 죄 사함과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에 대한 언급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성취이며 성전을 대체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불러일으키거나 적어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발견되고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약성서에서 좀 더 구체적인 본문을 살펴보고 바울 문헌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출발점은 아마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일

것입니다. 바울 문헌에서 성전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언급 중 하나입니다 .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언급은 사람들 자신을 성전이라고 언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도 그 성전이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그리스어 본문을 보면 영어 본문이 모호하지만, 그리스어 본문을 보면 대명사 you와 동사가 복수형으로 전체 회중이나 사람들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몸이 성령의 성전이라는 개인적인 진술이 아니라, 바울이 전체 교회, 고린도 신도 전체를 성전이라고 언급한 단체적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성전입니다. 더 많은 성전 언어가 12절에서 발견됩니다.

10절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초를 놓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누군가가 그 위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는 주의해서 건축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을 써서 건축하면, 그의 업적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금, 은, 보석의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구약과 유대 종말론 문헌과 다른 곳에서 금과 보석은 성전의 건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볼 수 있듯이, 새 예루살렘은 실제로 성전으로 묘사되고 성전 언어가 새 예루살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 금과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어, 기초의 언어, 보석, 금, 보석의 언어,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성전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하나님 의 백성이 이제 성전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제, 아마도 이것은 단순한 은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들이 교회를 성전에 비유한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내가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이 텍스트뿐이라면, 바울이 단순히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실제로 그렇게 결론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는 일, 특히 고린도전서의 다른 곳에서 하는 일, 구약에 대한 그의 의존, 고린도후서에서 성전 모티프로 하는 일, 그가 그것을 구약의 약속과 분명히 연결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성전을 은유로만 사용하고 교회를 성전에 비유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저는 바울이, 특히 더 광범위한 정경과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그가 하는 일을 감안할 때, 교회가 이제 성전의 진정한 의도를 성취한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의도하신 바는 이제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에서 절정과 성취에 도달합니다. 에스겔과 같은 예언적 본문이 예상했던 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회복된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요한복음 1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교회, 즉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인 그의 추종자들에서도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윤리적 의무와 윤리적 기준의 대부분은 교회가 성전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들에게 순결을 추구하고 부도덕한 형제를 추방하라는 부름은 교회가 성전이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순결이 성전과 연관되고 거룩함이 성전과 연관되었던 것처럼, 이제 바울은 교회를 참된 성전이자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이해하면서 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촉구합니다.

고린도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많은 윤리적 권고는 아마도 바울이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그 순수함과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16-17은 바울이 구약성경에서 성전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제는 교회에 적용한 예인 듯합니다. 은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참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처음에 의도하신 바를 성취한 것으로 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 문헌에서 잠깐만 머물러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과 16-18장,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미 몇 개의 본문을 읽었고, 5장과 17장을 새 창조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이러한 개념 중 많은 것이 밀접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나중에 계시록 21장에서 새 성전 예루살렘이 새 창조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주제 중 일부를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6:16-18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사이에 어떤 일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복수형을 주목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를 언급하는데,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군가는 거기서 멈추어, 글썬요, 다시 한번, 바울이 단순히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성전을 은유로 사용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이며, 그것은 단순히 일종의 상징이나 은유로 사용됩니다.

글썬요, 맞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바울이 구약성경 본문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16절의 첫 번째 구절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 가운데 걸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에스겔 37장과 26, 27절, 그리고 레위기 26장과 11, 12절에서 인용한 것일 것입니다. 레위기 인용은 장막의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은 하나님의 맥락에 있으며, 우리가 살펴보고 다시 살펴볼 40-47장 바로 앞에 나오는데, 회복되고 새롭게 된 성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26장에서 언어와 언약 공식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언약을 다룰 것이지만, 바울이 택한 언약 공식, 레위기 26장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곳을 두고,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다시 이스라엘의 맥락에서,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장막을 통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에스겔 36장은 매우 유사하고 거의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다시 에스겔이 회복되고, 재건되고, 새롭게 된 성전에 대한 묘사로 이어집니다. 에스겔 37장과 26절과 27절.

다시 말해서, 새 언약 공식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둘 것이다. 그러면 성소는 40에서 47까지 설명될 것이다

내 거처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과 16절에서 실제로 두 가지를 결합합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그는 내가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 가운데 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스겔 37장에서 장막과 새로워진 성전과 관련된 두 본문을 인용하여 그들이 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정당화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실제로 두 개의 구약 본문을 더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18절이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서 저자 바울이 구약성경 에서 인용하여 그 구약성경 본문들, 레위기 26장, 그리고 예언적 본문들, 특히 에스겔 37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거룩함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다시 한 번, 구약의 장막과 성전과 관련된 순수함과 거룩함의 개념이 이제 새로운 성전, 즉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은유일 뿐만 아니라 성전의 구약 모티프와 심지어 에제키엘 37장의 종말론적 성전의 성취입니다.

사실, 이 섹션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한 약속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바울은 다시 한 번 구약성경 본문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소를 세우시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약속이 이제 물리적인 건물이나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두 본문 모두 증거하는 듯하고,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면 입증될 수 있겠지만, 바울이 구약성경에서 물리적 성전을 세운 의도와 종말론적 성전에 대한 기대가 이제 사람들, 교회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후서 6장도 그것을 정당화하고 구약성경 자체를 언급함으로써 그것을 설명합니다.

다음 정지 지점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텍스트들 중 일부를 이미 살펴보았고 다른 주제와 관련된 다른

맥락에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적어도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섹션의 끝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의 인류가 되는 연합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서로 달랐던 두 집단을 데려가셔서 이제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모으심으로써 입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두 집단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몸, 하나의 새로운 인류, 교회로 모아서 그들 사이에 평화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이것을 구약성경, 특히 이사야서에 대한 암시에서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구약을 명시적으로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덧붙이자면, 지난 20년 정도 동안 진행된 일 중 하나는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을 사용한 것에 대한 새로운 연구로, 구약성경의 중요성이 신약성경 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런 일이 일어났거나, 기록된 대로 되었다거나, 마태복음 2장이나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본 것과 같은 다른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말로 인용한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대신 때때로 저자는 구약성경 본문과 구약성경 언어를 취하여 이것이 실제로 이것의 성취라거나, 이것이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일어났거나, 기록된 대로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작품에 엮어 넣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단순히 언어를 가져다가 자신의 담론, 자신의 말에 엮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때때로 그들이 실제로 그것을 인용할 때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실제로 여러 개념과 구절에 대한 구체적인 참조를 자신의 언어로 엮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11절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이해하도록 이 섹션 중 몇 개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1장과 12장에는 이미 구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출생으로 이방인이었고 스스로를 할레자라고 부르는 자들로부터 할레받지 않은 자라고 불렸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구약의 언어가 분명합니다.

12절, 그대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 제외되었으며, 약속의 언약에 대해 외국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구절들을 읽었지만, 구약의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체적인 언급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저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멀리 있던 여러분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 멀고 가까운 언어는 다시 이사야서에서 바로 나옵니다. 14절은 바로 그 자신, 우리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언어, 이사야 52장과 다른 곳, 화해의 언어, 둘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만드는 것, 새로움의 개념.

이 언어는 이사야서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언급하는 이사야서에서 나온 본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모으는 것을 언급합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요점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합,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연합하는 것이 구약성경의 성취이며, 특히 그가 40장부터 66장까지 자세히 설명한 이사야의 회복 계획입니다. 구약성경에 대한 이러한 암시의 연장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연합하고 평화를 가져온 이사야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바울의 긴 설명은 20절부터 22절까지의 이러한 언급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사실, 저는 뒤로 돌아가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이 결론 단원의 실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히 그의 독자인 이방인들은 더 이상 외국인이나 낯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동료 시민이며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의 집안 식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모퉁잇돌이 되셨습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건물 이미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저는 20장에서 기초에 대한 언급이 아마도 20절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2장은 아마도 성전 이미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건물 전체가 합쳐져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사시는 거처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성전으로, 마지막 시대의 성전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거처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 성전의 기초입니다. 사실, 그 기초의 언어는 다른 유대 문헌에서 발견되는 것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쿨란 공동체와 사해 두루마리는 공동체를 성전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언어를 사용하고, 창립 멤버, 공동체의 핵심 멤버를 성전의 기초로 묘사합니다. 이제 쿨란 공동체는 여전히 물리적으로 재건된 성전을 기대했지만, 그동안 그들은 성전 언어를 스스로에게 적용했고, 핵심 창립 멤버를 공동체와 성전의 기초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사도와 선지자를 이 성전의 기초로 부르면서 비슷한 일을 합니다. 이 성전은 문자적인 돌과 건축 블록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거하시는 이 성전을 구성하는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인용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이사야 28:16을 암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모퉁잇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사도와 선지자가 이 구조의 기초이기는 하지만, 예수는 주요 모퉁잇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종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모든 것의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성전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 언급은 성전이 교회를 묘사하는 은유로만 사용하는 단순한 은유적 언어가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구약성경 본문, 특히 이사야와 이사야 28-16장,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초석이라는 언급을 근거로, 그 본문과 2장 전체에 걸쳐 있는 다른 구약성경 본문은 바울이 교회를 구약 예언 본문의 성취로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물리적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의 자리입니다.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장막 성전의 임재는 이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체에서 성취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통해 거기에 거하십니다.

사실, 이 개념이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에베소서의 본문을 하나 더 언급할 수 있다면, 에베소서 5장 18-20절을 살펴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20절. 이 본문은 자주 다시 언급되고, 보통 매우 개인적으로 읽히며,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18절부터, 술에 취하지 말고, 그것은 방탕함으로 이어집니다. 대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시와 찬송가와 성령의 노래로 서로 말하고, 주님을 마음에 노래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21절도 아마 거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섹션의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싶지 않지만, 그 구절을 살펴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보통 우리는 이것을 개인주의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나를 채우고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나를 통제하고 채우고 포도주에 취한다는 것과는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개인적으로 채워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 개념에 대해 논쟁하고 싶지 않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인지 의문을 품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더 단체적으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본문인 에베소서 2장에 비추어 읽어야 할까 궁금합니다. 사실, 여기서도 충만해지라는 명령은 복수형이고, 분명히 바울이 집단에게 말하고 있다면 단수가 아닌 복수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마도 전체 교회를 더 단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에 충만해지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교회를 성전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편과 찬송가와 영적 시편에서 서로에게 말하는 이 언어에 주목하세요. 이것은 이 지시를 예배를 위해 모인 교회의 맥락에 두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집에서 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채우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성전의 임재를 말합니다.

사실, 구약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채우는 것, 즉 하나님께서 성전을 채우시는 것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읽는 한 본문, 에스겔 43장은 에스겔이 성전의 구조를 보고 성전을 둘러보고 측량한 후에 회복되고 새로워진 성전에 관해 언급합니다. 3장에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2절 에스겔 43장 2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5절에서 말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러자 성령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려갔고,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5장에서 채우는 언어가 성전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영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주변 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5장과 6장에서 우리는 그 윤리적 의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의 의미,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저는 우리가 이것을 전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읽는 것을 멈추고, 다시 한 번,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거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 성장하는 2장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채우시는 성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서 바울이 성전 이미지를 일관되게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편리한 은유나 비교가 아니라, 바울은 성전 이미지를 사용하여 구약 성전의 성취, 물리적 성전에 대한 의도, 회복된 성전에 대한 예언적 기대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서 실현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 그분의 백성인 교회 안에 거하심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마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모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세 번째 성전 시대가 있을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 시대, 즉 서기 70년에 파괴된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세 번째 성전 시대가 있을까요? 제 제안은, 네,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세 번째 성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시작하는 세 번째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이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이 아닌 차원이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새로운 창조에서 최종 실현과 최종 성취를 발견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 문헌에서 벗어나 다른 두 본문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중 하나는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에서 발견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자는 책 전체에 걸쳐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 체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옛 언약 자체가 결함이 있었고 계획 A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 B를 제정해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옛 언약 체계가 가리키는 바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왜 다른 것으로 돌아가고 싶어할까요? 8장부터 10장까지의 긴 부분에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희생 제도 전체를 대체하고 성취하신다고 길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의 용서는 구약의 장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8장과 다시 한 번,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몇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런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는 그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성소에서 섬기십니다. 참 장막, 곧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인간의 손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즉, 지상의 장막이나 성전입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도록 임명되었으므로, 이 대제사장, 즉 예수께서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가 지상에 계셨다면 그는 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규정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성소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짓고자 할 때, 산에서 보여 주신 본보기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고 경고를 받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께서 받으신 사역은 그들이 받은 사역보다 우월합니다. 그가 중보자가 되신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더 나은 약속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막과 성전의 문제는 또한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주제는 성전에 대한 후에 다룰 것입니다. 다음 장인 9장 11절과 12절로 넘어가면,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미 여기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때, 그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과하셨습니다. 즉, 그것은 이 창조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과 지상의 장막과 성전이 한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피로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어도 이 본문에서 중요한 세 가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성전과 관련하여 이것들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첫째, 예수는 이제 더 높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는 이제 성소, 즉 하늘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이를 성취합니다. 이 제사는 이제 자신의 피이며, 백성을 위한 영원한 구원을 얻고 확보합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다시 한번, 죄의 구원과 용서가 이제 물리적 성전과 성막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의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천상의 성막에서 섬긴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의 성막은 실제 성막 성전의 실체에 대한 유형이나 사본 또는 그림자일 뿐이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섬기시는 성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 죄 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장막 성전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요점과 관련하여 이미 언급한 세 번째 사항은 용서가 이제 물리적 장막이나 물리적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물리적 장막과 성전의 겉보기에 일시적인 본질에 대해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것이 가려졌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죄 사함은 인간 제사장과 지상의 장막과 성전과 연관되지 않지만, 이제 죄 사함은 우리의 천상 제사장과 연관됩니다. 저자는 여전히 그가 인간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천상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는 이제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지상의 성전이 단지 모델이나 패턴일 뿐인 천상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그러므로 저자의 주장은 다시 한 번, 단순히 계획 A가 효과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기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나 패턴 또는 그림자의 언어는 지상의 장막과 성전이 이미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루기 위해 활용할 수단의 영구적인 표현이 되도록 의도된 적이 없으며, 장막과 성전은 더 큰 무언가의 그림자 또는 예상으로 의도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의 주장은 더 위대한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장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 있다는 더 큰 현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시 한 번 흥미롭게도, 적어도 이 구절에서는 백성이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말하는 듯합니다. 이는 책 전반에 걸쳐 저자가 예수를 성취하고 다른 구약의 인물과 장소, 제도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목적과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성취로 여겨지고 성전에서 일어난 일, 희생 제도 전체, 언약 전체, 그리고 장막과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물리적인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에 구체화된 더 큰 현실에서 성취를 찾습니다. 또 다른 텍스트, 성전 언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텍스트가 있고, 제가 이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다른 텍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나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으로 분명히 언급하고 그것을 구약 성경 텍스트와 연결하는 구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분명히 그렇게 하고, 바울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으시고 그분께 보배로운 살아 있는 돌이신 그분께 나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저자가 개인이 아니라 교회나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과 같이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택한 귀한 초석을 두었으니 그를 신뢰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유의하십시오. 첫째, 성전 언어는 이제 교회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입니다. 그들은 성전, 돌입니다. 에베소서 2장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서 말한 것과 매우 일치하는 듯합니다. 이제 백성 자체가 성전을 구성하는 은유적 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는 주요 돌입니다. 6절, 나는 시온에 귀중한 모퉁잇돌을 놓았습니다. 예수는 모퉁잇돌 또는 주요 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본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는 이 성전의 초석이고, 사람들은 성전의 구조를 형성하는 은유적 돌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질 영적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모든 구약성경 성전 이미지를 취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했는데, 바울이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지 편리한 은유적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은유적이기는 하지만 저자는 그것을 구약성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인용합니다. 바울이 암시했지만 저자는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합니다.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이 개념은 몇 구절 뒤에 나오는 9절에서 저자가 말하는 것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혹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이의 찬송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직접 인용한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왕국이라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제 흥미롭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적용됩니다. 그들은 이제 새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회복된 성전에서 찬양과 영적 제사를 섬기고 드리는 왕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언급은 다시 한번 이것이 단순한 은유 이상이며 저자가 교회를 회복되고 새로워진 성전에 대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참된 성전으로 이해했으며, 히브리어 저자가 참된 성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한 성막에 있는 실제 성전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라고 이해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참된 성전이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에서 성취된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도 에베소서 2장과 매우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28장의 성취에서 주요 초석이시고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사시는 이 거처를 구성하는 건축 돌이며 제사장으로서 기능합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심을 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사람들 스스로가 제사장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것이 믿음을 통해 그분과 연합하고 교제함으로써 그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도 바울 문학과 매우 비슷하게 성전 언어를 취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적용합니다.

이제, 성전 언어를 취해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바울이나 베드로 또는 다른 신약 저자들에게만 고유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유대인 작가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일부 구약 중간 문학에서 때때로 유대인 작가들이 구약 언어, 성전 언어를 취해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쿰란 공동체, 사해 두루마리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구약성서의 성전 언어를 가져와서 그들의 공동체에 적용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유대 문학이 사실상 의심의 여지 없이 여전히 물리적 구조의 미래 재건을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쿰란 공동체에서 그들이 그들의 공동체에 성전 이미지를 적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이유로 예루살렘의 물리적 성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언어를 가져와서 스스로에게 적용하지만, 여전히 재건된 물리적 성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전 언어를 공동체에 적용한 이유는 그가 물리적 성전을 거부하거나, 성전이 타락했다고 생각하거나, 등등, 언젠가는 물리적 성전이 아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며, 그동안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성전에 대한 구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다음에 확장하여 이제 그에게 속한 그의 백성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성전 에 대한 약속은 지금이나 미래에 물리적 건물이나 성전에서 성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는 여전히 유대인의 기대와 유대 문학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신약은 재건된 성전의 예언과 재건된 성전에 대한 기대, 심지어 구약 성전의 의도와 목적이 이제 물리적으로 재건된 성전에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참 성전이며, 또한 그의 백성은 이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제 성전의 이미지나 성전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이미이지만 아직은 아닌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성전을 성취하신 것, 바울 문헌에서,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서 예수께서 다시 히브리서에서, 하지만 교회가 성전의 의도와 회복된 성전의 기대를 성취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성취합니다. 그것이 이미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살펴볼 아직 아닌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명확히 하자면, 구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선 에덴 동산에서, 에덴은 성소, 일종의 성전 성소 장막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따르면, 죄가 그것을 파괴하고 죄가 그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나거나 추방당했고, 구약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그의 성소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거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구약에서 물리적 장막과 성전을 통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담과 이브보다 더 나은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죄 때문에 성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은 에덴을 되찾을 회복되고 재건된 성전을 기대하고 기대했습니다. 이 성전은 처음에 장막과 성전의 의도를 회복되고 재건된 성전에서 이를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글썄요,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까요? 구약성경, 아니, 신약성경에 이르면,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물리적 구조물이나 재건된 물리적 성전에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장막과 성전에서 나타났으며, 선지자들에게서 예상되고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약성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의 백성 안에서, 그래서 신약성경 저자들은 성전 이미지를 사용하여 교회가 성전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은 지금 교회 성전에서 그의 성령을 통해 그의 백성과 함께 거주하고 거하십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제가 말했듯이, 아직은 아닌 측면을 살펴보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성전, 장막, 그리고 그의 백성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에덴적 거처를 엿보게 해줍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7, 신약의 성전입니다.